

대전/충청/강원

"고령농업 노후자금·청년농업 기회를...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

입력 2025-01-20 16:00

작년, 올해 농지를 매도하셨나요?
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아보세요!

추가로

QR코드를 통해
공고문을 확인하실 수
있습니다

✓ 농업인 요건

- 약정체결일 기준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

✓ 지급대상농지

- 3년 이상 소유 중인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

✓ 지원내용

- ① 매도(분할지급) 농지매도 대금 +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
- ② 매도(일시지급*) 농지매도 대금 + 1ha당 50만 × 지급기간 × 지급율
* 경작허용농지 1,000㎡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, 지급 기간별 최대 30% 차감
- ③ [매도 조건부 임대]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+ 농지연금 + 농지임대료
※ ①과 ③의 경우 경작 허용 농지가 1,000㎡ 이상 3,000㎡ 이하의 경우 공역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후 지원

✓ 지급상한 면적

- 최대 4ha(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)

[매도*] 최대 월 200만원(4ha기준)
* 10년 기준 (분할지급) 240백만원, (일시지급) 168백만원

[매도 조건부 임대*] 최대 월 160만원(4ha기준)
* 10년 기준(분할지급) 192백만원 + 농지연금 + 농지임대료

가입 시 연령에 따라
최대 10년간 지급

✓ 사업신청방법 :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

※ 자세한 가입조건, 지급금액 등은 상담 후 확인하세요.

농림축산식품부 **krf** 한국농어촌공사 **fb** 농지은행 문의 ☎ 1577-7770

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. 한국농어촌공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'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'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.

한국일보_고령농엔 노후자금·청년농엔 기회를...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
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.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.

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어온 65~84세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총남지사는 예산 97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. 3년 이상 본인 소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끝난 농지 4ha(4만m²)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지난해 고령 농업인 1,686명이 참여해 농지 1,062ha(1,062만m²)를 청년농에 이양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신청 방식은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로 나뉜다.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 대금 외 ha당 매월 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.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을 일시불로 받은 방식이 도입돼 경제상황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.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 선택하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 외 ha당 매월 4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.

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분야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"이라며 "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,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윤형권 기자 yhknews@hankookilbo.com

세상을 보는 균형, 한국일보 Copyright © Hankookilbo